

패션지향의 젊은이들이 넘치는 거리의 「梨大입구」를 잡기위한 의류업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崔東植>



“中低價로 점령하고객 잡아라”業界 경쟁

의류 黃金상권 梨大입구

「梨大입구를 잡아라」。유달리 업체의 부침과 판도변화가 심한 의류업계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믿어지고 있는 말이다. 흔히 「이대입구」로 불리는 서울서대문구 대현동 일대는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등 8개 대학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대학촌。

평일 주말 할것없이 내내 대학생들이 물려들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청춘 남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매일 오후 3~4시경이면 일대의 도로와 골목길은 옷재 어깨가 부딪칠만큼 붐비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두배쯤 많다. 하루 유동인구는 50만명에서 80만명선。

젊은이들이 물려들면서 옷가게가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 이대전철역과 이대전문신촌역 이화여대출입로를 끼고 점으로 하는 사방 1km가 안되는 지역에 무려 1천여개의 가게가 자리잡았다. 점포 규모는 5~6평에 불과한 가게들이지만 대부분 2천만원대의 보증금, 비슷한 만큼의 권리금을 안고 있으며 월세도 1백만원가량이나 된다。

명품과 양구정품에 값비싼 옷가게가 많은 편인데 비해 이곳은 젊은이들이 부담을 느끼지않고 옷을 만져볼수 있는 중저가품이 많다。

예상을 넘어선 과감한 패션이 등장했다간 어느새 패셔블에 밀려나는 유행의 최첨단 지대이기도 해 파리로 마뉴독도교를 등에 업은 최신유행과의 「사자」도 3,4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류업체의 얘기다。

유명인사들이 「목종

하루 유동人口 80萬명선...일주일내내 북적
千여점 포 「부담없는값」으로 10~20代 손짓

은 곳에 전문매장을 만들기 위해 자리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특히 유명 의류업체의 관심을 끄는 곳이 대문로의 최대매장。

약 80평 크기의 이곳은 「용의 눈」이란 별칭이 붙을만큼 요즘지로 보증금이 2억5천만원, 월세는 7백만원선. 권리금은 아예 비빌。

현재 이곳과 독점계약을 한 업체는 (주)선경의 카스피(CASPI)。중저가 캐주얼복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업계에 섰지만 등장했던 이랜드회사의 헌트매장에서 지난 91년 10월에 선정매장으로 바뀐 것. 삼성그룹의 에스에스패션, 럭키금성의 반도패션, 이랜드의 헌트가 강세를 보여온 의류업계에 선정그룹이 의욕적으로 뛰어든다는 태풍의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원 5명과 함께 이곳을 임대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 羅永昌씨(32)는 「월 1억 원정도의 매상을 올려야 하는 데 요즘은 불성기라 고전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저가 옷시 장구모가 90년 8천5백여원 규모에서 92년 1조 8천여원 규모로 커지는 등 중저가의류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기대해볼만하다』고 말했다。

<趙憲注>